

# 학교의 새로운 과제와 교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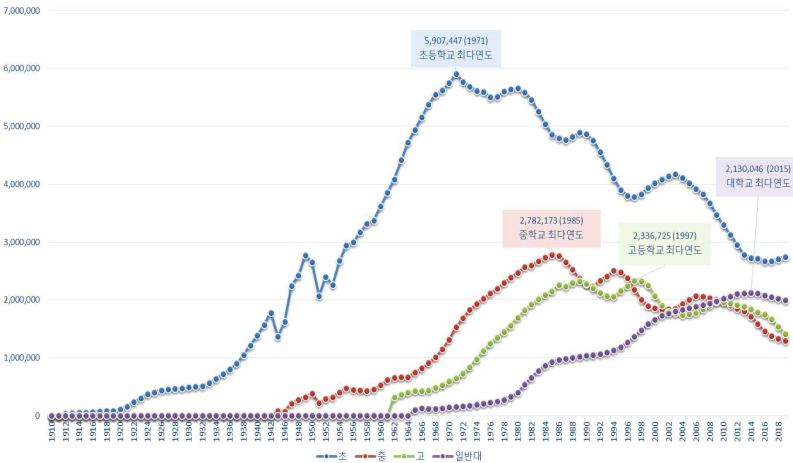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성기선

# 근대 한국 학교교육 110년 동안의 학생수 변화 추이

## 연도별 초·중·고·대 학생수 변화 추이



# 제도교육의 성장, 쇠퇴

- 1990년대말까지 학교교육의 성장기
- 2000년대 넘어서면서 학교교육의 쇠퇴기
  - 학령인구 급감, 학교 폐교, 인구소멸, 지방대학 붕괴
-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 분권화,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교교학점제, 교육자치 강화 등 과제 산적
-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 교육격차 및 교육양극화 심화,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제약, 과도한 사교육비 등이 난제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서구사회가  
300년 동안 변화해온 것을 30년 동안 겪었죠.

**1950~60년대**  
**베이버부머**  
**학교 양적 팽창**

**1970년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교육**

**1980년대**  
**대학졸업정원제**

**1990년대**  
**5.31 교육개혁**

**2000년대 혁신학교**  
**운동, 학령인구 급감**  
**지방대학붕괴등**

해방이후 80% 문맹률에서  
지금은 전체 인구의

50%가  
고등교육  
이수!



그 결과,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혼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국가통제교육과정

교육민주화

입시위주 수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재구성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중심

학생중심교육

지역학습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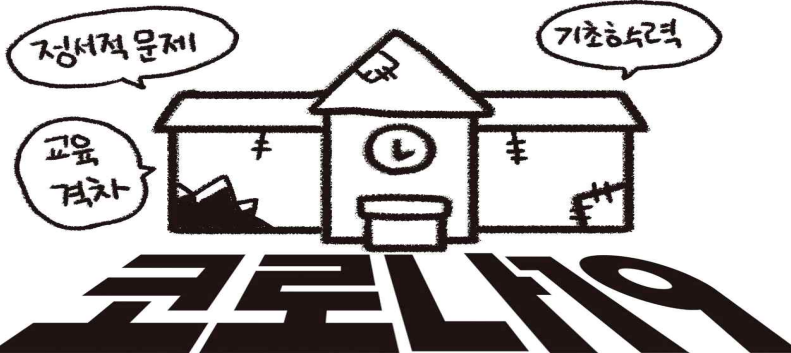


무가 맨날  
바뀌어...

2022년 교육트렌드는 어떻게 바뀔까요?

간단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미친  
충격과 후유증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



또한

대통령

교육감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5년 예고된 고교학점제 안착 준비**  
**학생 수 급감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  
**시 등 새로운 기술혁명의 영향 준비**



내년도  
만만치 않겠군.

2022



사회 변화와 교육  
MZ세대 교사  
코로나19와 학교교육  
기후변화와 환경교육  
요즘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 문제  
학교 형태의 다양화  
학교공간혁신  
기초학력  
미디어 리터러시  
원격교육과 에듀테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불평등  
마을교육공동체  
학교자치와 민주학교  
국가교육위원회의 탄생  
교육재정  
교원양성체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 학교교육제4의 길: 앤디 하그리브스, 셸리-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
통제	전문성	관료주의와 시장	관료주의, 시장, 전문성
목적	혁신과 영감	시장과 표준화	성과와 파트너십
신뢰	수동적인 신뢰	적극적인 불신	대중의 신뢰
지역사회 참여	대체적으로 부재	학부모의 선택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
교육과정	비일관적 혁신	상세하게 사전기술된 표준화된 성취기준	코칭 및 지원을 수반한 사전기술의 다양화
교수와 학습 전문성	절충적.비일관적 자율적	성취기준과 시험에 맞춰 지도 비전문화	데이터 중심.개인 맞춤형 재전문화
교사 학습공동체	자율과 재량	직위적 협력관계	데이터 중시.교사의 열의
평가와 책무성	지역별 표집	전수조사를 통한 교부담 평가	성취목표 높임, 자기감시, 전수조사를 통한 평가
수평적 관계	자발적	경쟁적	네트워크화

[표 1] '제1의 길'에서 '제3의 길'에 이르는 교육적 변화

학교교육 제4의 길: 모두를 위한 교육, 집단적 의사결정과정,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지속가능한 책임의식을 통한 집단적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 지역사회 중심적인 네트워크 구축

## ○ Segregation vs Aggregation

### ○ 분리냐 통합이냐?

- 능력
- 진로
- 장애
- 가정배경

### ○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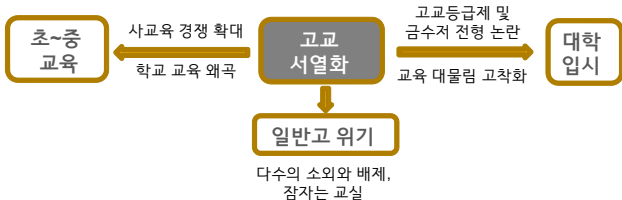
### ○ 비평준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 고교 체제 개편의 의미와 필요성

## 1. 현행 고교 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 → 수평적 다양화  
진로분기형 고교 → 통합형 고교

## 2. 고교 체제의 의미와 방향



“고교서열화가 해소되면 고등학교는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날까?”

# 고교 체제 개편의 의미와 필요성

## 2. 고교 체제의 의미와 방향

고교 서열화 해소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 '유연한 진로탐색형'(5.31 개혁, 7차 교육과정)
- '엄격한 진로분기형'(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 요인

- 학교 및 학급단위 교육과정 + 명문대 입학 경쟁
- 엄격한 진로분기형 + 학급제도의 특성
- 교사의 조건(전공, 시수 등) + '분업에 기초한 기계적 평등주의'
- 내신 상위 등급 산출을 위한 선택 축소

# 고교 체제 개편의 의미와 필요성

## 3. 학점제 + 교사별 평가 : 체제 개편의 지향점

### 이명박 정부 학점제 도입 실패

- 내신 절대평가 및 재이수(학사경고, 유급, 제적)을 전제로 함  
: 원론 · 이상적, 그러나 현실 적용 한계
- 교과교실제와 연계(엄청난 재정 투자), 결국 '+1학급' 수준별 분반 수업으로 진행
- 보다 근본적으로 고교 다양화(특목, 자사고 확대)와 연계된 '엄격한 진로분기형' 고교 체제 유지, 소외된 일반고에 일시적 재정 투자 효과

### 박근혜 정부 이후 학점제 추진

-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2016. 4. 25)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2016. 12. 22)

### 2017년 여름, 학점제 교육과정 논의의 방향

- 원론 · 이상적 형태를 지향하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접근
- '유연한 진로탐색형' 체제로의 전환
-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선택권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
- 교육주체(특히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

# 고교 체제 개편의 의미와 필요성

## 4. 학점제 + 교사별 평가 : 체제 개편의 지향점

첫째, 고교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구분	현재의 고교 체제	미래형 고교 체제
학생상	타율적 관리의 대상 (머리 큰 중학생)	자율적인 존재 (교복입은 시민, 혹은 예비 성인)
교육과정 운영의 단위	학교 및 학급 중심 (진로집중과정에 근거한 학급 편성 및 운영)	학생 선택 중심 (개인별 과목 선택에 의한 진로집중과정 설계, 학교간 연계를 통한 선택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의 준거	교사의 조건 중심 (전공, 시수 등)	학생의 진로와 적성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	학교 유형 다양화(서열화)	평준화 체제 하의 수평적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목표	대학입시의 성공	미래 핵심 역량의 신장
교육과정 운영의 주안점	소수의 성공에 집중	다수의 성장을 고려

미이수, 유급제도 도입

## 고교 체제 개편의 의미와 필요성

### 4. 학점제 + 교사별 평가 : 체제 개편의 지향점

둘째, 교사별(수업별) 평가와 동시 도입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셋째, 교사 문화(기계적 평등주의)의 변화

넷째, 소인수 선택교과의 내신 불이익 해소 방안 마련

다섯째,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와 함께 추진

여섯째, 입시 과목 편중 우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소외 극복

일곱째, 다급하지 않은 정책 추진, 정교한 단계적 도입

\* 학점제의 전면적 도입, 10년 이상의 노력

# 고교 체제 개편 연계한 대학 입시

## 1. 가장 이상적인 대학입시에 대한 상상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인문·과학·예술 등)

교육과정 다양화,  
학점제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 구성  
교사별(수업별) 평가

학습의 개별화,  
모든 학생의 독특한 학습 이력

전국 단위 획일적 평가, 객관적 서열화 불가능  
수능 자격교사화 + 학생부와 면접 기반의  
대학입시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요인 배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고교 체제 개편 연계한 대학 입시

## 2. 대입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 방향

2021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객관성, 공정성,  
'패자부활전',  
불투명한 학종 반대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불투명 논란

비교과 영역 축소,  
과도한 스펙 금지,  
외부 전문가 참관

논란 제거,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통합 정시  
전형으로의  
전환 모색

수능 시험 이후  
입시,  
수능 절대평가 등급  
+  
학생부 기록 + 면접

고 3 교육과정 정상화  
고교 교사 참여 가능

# 미래형 수능은 어떻게 변화?

## ◆ 수능 체제의 현황과 과제

1. 수능은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요소로 교육과정 개정,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평가 내용, 시행 체제, 점수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침
2. 수능은 국가에서 출제·시행·관리하는 공정한 표준화 검사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3. 하지만,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선다형 문항이 갖는 한계로 인해 고등학교 수업이 문제풀이식으로 운영,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측정에 제약
4. 미래 교육의 화두가 지식의 융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중등 교육의 최종 관문인 수능에서도 기존의 선다형 위주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융합적인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 주요국의 서·논술형 대입시험/졸업자격시험 사례

-미국, 프랑스, 핀란드, 중국, 일본, 그리고 국제인증 교육과정·평가의 서·논술형 대입시험이나 졸업자격시험

-시험 체제와 채점 체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 시험은 대체로 배경 지식이 가지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읽기·쓰기 능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고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채점을 진행하는 등 서·논술형 시험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

# 서논술형 수능 도입 조건

- 서·논술형 수능 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의 형성,
- 서·논술형 시험 체제의 단계적인 도입,
- 서·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비공개 및 이의신청 제한,
- 서·논술형 수능 체제 도입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 점검 및 구축 방안 마련,
- 서·논술형 수능 체제 도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서·논술형 시험 연구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필요

〈표 V-12〉 서논술형 수능 체제 도입을 위한 두 가지 방향 개요

구분	방향 1 (분리/이원화 도입)	방향 2 (추가 도입)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커스 그룹 및 영역별 전문가 협의회의 '분리(이원화) 도입' 우세 의견 반영</li> <li>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 다양화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이수)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 조사의 '추가 도입 (선다형+서논술형)' 우세 의견 반영</li> <li>현행 수능 단일 체제 유지</li> </ul>
기본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형 논술 영역을 분리 신설하여 현행 수능 과 이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또는 전체 영역을 선다형+서술형으로 변경</li> </ul>
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학점제를 통해 수험생들이 이수하게 될 다양한 선택과목을 계열별(예: 인문/수리/사회/과학/기술 등 5개 계열)로 구분하여 출제하고 수험생이 택 1</li> </ul>	-
문항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계열별로 서술형 2문항, 논술형 1문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서술형 2문항 (또는 1문항만) 추가</li> </ul>
답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4 2면 (서술형 1/2면씩, 논술형 1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4 1면 (서술형 1/2면씩)</li> </ul>
시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100분 또는 12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술형으로 인해 모든 영역을 하루에 시행할 수 없다면, 2일 간 시행 (예: 국어/수학/영어는 1일차, 한국사/탐구 및 제2외/한문은 2일차에 시행)</li> </ul>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출제 (1월) → 시행 (1월말 또는 2월초) → 채점 (2월) → 성적 통지 (2월말)</li> <li>※ 고등학교 2학년말에 서논술형 수능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형을 유지하면서 선다형 채점 기간(18일)에 서술형 채점본부 별도 운영</li> </ul>
채점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원 일괄 채점 또는 지원 대학별 분산 채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원 일괄 채점</li> </ul>
점수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대평가 5등급 (일괄 채점 시) 또는 절대/상대평가 (분산 채점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다형+서술형 합산점수에 대한 절대평가 9등급 (또는 7등급)</li> </ul>
필수/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으로 선택 영역화하되, 도입 취지를 반영하려면 필수 영역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형 유지</li> </ul>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한 대학에서 기본 자격 심사 또는 수시 전형 자료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형과 유사</li> </ul>

# 미래형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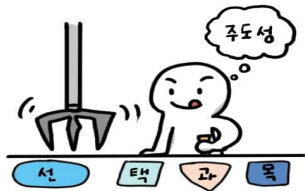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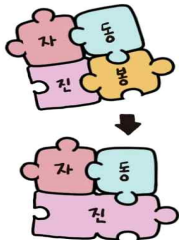
- ▷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본격 추진

## <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안) >



(교육부, 2020:5)

#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발표!!!!



#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변화대응력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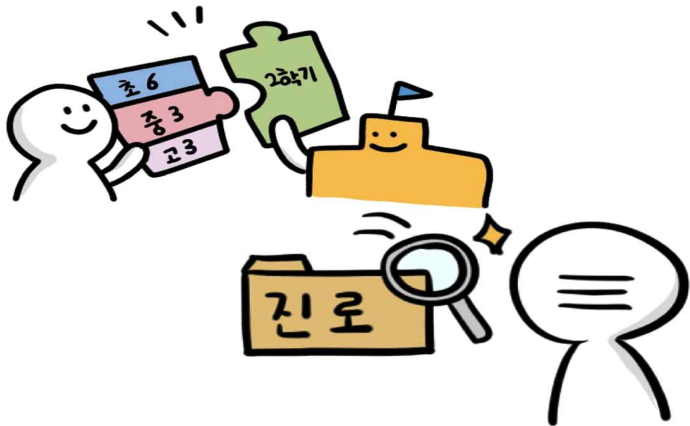




AI와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 등 언급  
: 기초소양에 '언어, 수리, 디지털소양'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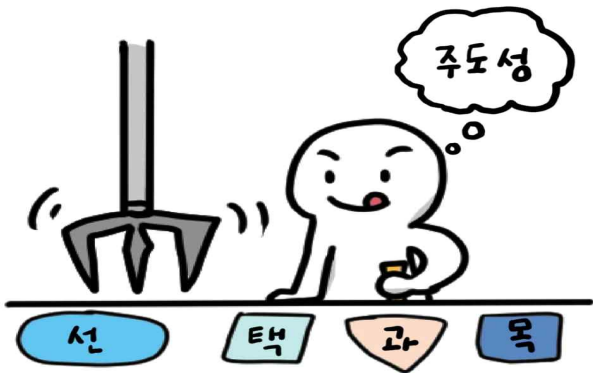
초6, 중3, 고3은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학기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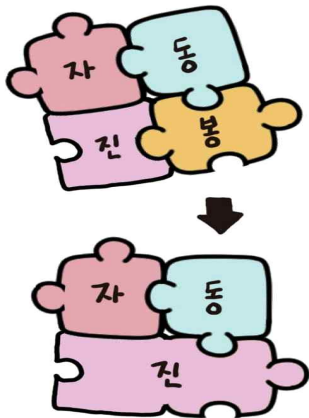
초1 한글 해득 교육 강조,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초1 안전한생활 삭제, 슬생과 즐생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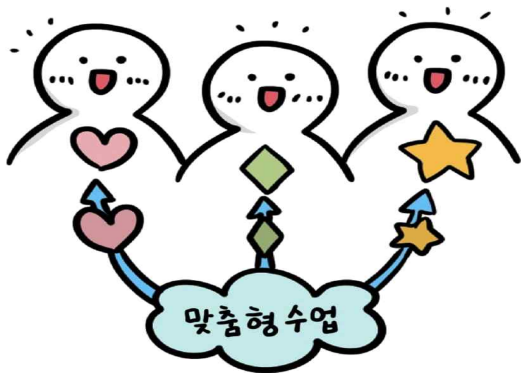
고교학점제를 위해 192학점으로 이수 적정화,  
다양한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미이수자 보충 이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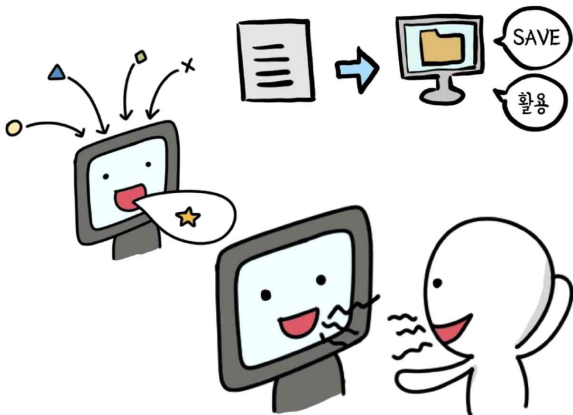
창체를 자동봉진에서 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  
3개로 재구조화, 봉사는 진로와 통합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범교과학습 주제 정비 예정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을 위해  
현장 교원 50% 이상 참여, 학생 맞춤형 수업 제시



온오프라인 연계, 원격수업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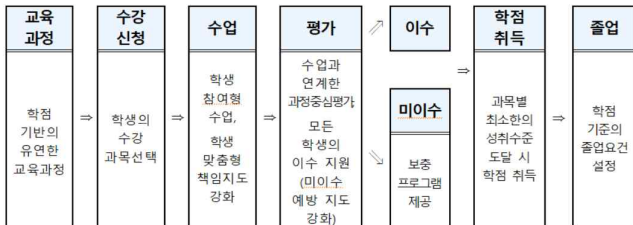


# 고교학점제 정의 및 학사제도 운영 체계

## □ 학점제 정의

-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 >





# 고교학점제와 평가변화

## □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도 설계

- (학점제에서의 평가 원칙 정립) 서열화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운영하되, 평가제도로 인한 과목 선택 왜곡 방지 필요
-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 '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과 함께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확대\*('19 진로선택과목 ⇒ '25 전체 선택과목)
  - \* 2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현행 석차등급제 유지 ⇒ '25학년도 입학생부터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제 적용, 공통과목의 경우 석차등급제 유지
- (성취도 및 추가 정보 산출) 성취평가제 적용 과목에 대해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산출

<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예시) >

과목명	학점 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정치와 법	4	85/64.4	B(55)	A(7.3) B(30.9) C(12.7) D(30.9) E(18.2)

## □ 성장 중심 평가체제 안착 기반 마련

-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평가,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 및 제도 운영 기반 조성  
※ 성취평가제 안내 자료(학생 평가 지원 포털에 탑재) 개정 교사 평가역량 강화 연수 지원 등

- (성취평가 모니터링 체제 구축) 공정한 학생 평가 담보를 위해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등 내신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현행 학교알리미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공시정보(일반선택과목, 숫자는 예시) >

과목(단위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A	B	C	D	E
문학(4)	74.5	15.7	14.1	30.6	25.9	14.9	15.4

- 시도단위에서는 학교별 평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앙단위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등 성취평가 관리 체제 구축
- (미래형 대입)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8학년도 대입 적용) 논의 착수
-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교육과정 연수 및 안내, 정성평가 역량 제고 등 대학의 고교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지원
- ※ 현행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활용

모니터(M): 자동

발표자 도구 사용

모니터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20 종합추진계획 수립

'22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일반계고 부분 도입

'25 학점제 본격 시행

## 기타 해결과제

-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전에 따른 교육청,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평가, 교수학습 역량 제고 필요
- 국가수준-지방수준-학교수준-교사수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방안 마련,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혁신 관련 전문성 제고
- 교사의 다교과 역량 제고
- 외부 전문가의 수업 가능성 탐색
-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
-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 지 요일?

- “학교에 20-30%의 교과선택권을 주고 알아서 구성해보라고 하면 학교가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지역이 주체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내고, 국가와 지역, 학교가 모두 나서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를 일주일 5일 중 하루를 지역사회 전체가 교사가 되는 지역사회교육의 날로 정하고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을 개방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 지역사회로 나가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20%는 지역사회가 교육주체가 되어 소화하고 나머지 10%는 학교 안에서 소화하도록 하면 고교학점제가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적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학교가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패러다임 변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다.

# 정리; 학교 현장의 변화 예측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자치, 학교자치 강화
- 2022 교육과정 개정, 역량중심교육과정
- 고교학점제, 지요일, 진로와 적성 중심
- 교원양성체제 개편, 실습학기제, 특성화, 다  
교과역량 등
- ICT, AI의 도입과 맞춤형 개별화 교육
- 원격교육 활용
- 서논술형입시로의 전환
- 기본교육에 대한 강조

# Thank You !